2018학년도 대구교육대학교 정시모집

집단 면접 문항

문 제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추억에 남을 음식을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4교시를 활용하여 모둠별로 요리를 하나씩 정하여 만든 후 나누어 먹기로 한 것입니다.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과 불을 조심하고, 음식은 무엇보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만드세요.” 현수네 모둠은 카레라이스를 하기로 했는데, 현수가 맡은 감자가 문제였습니다. 감자칼 사용에 애를 먹어서 20분이 지나도록 껍질조차 다 벗기질 못하고 끙끙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학급의 담임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기 가운데 하나를 골라 그것이 다른 보기와 비교하여 더 적절한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① “좀 서둘러야겠구나.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독려한다.
② 현수네 모둠으로 직접 가서 시범을 보이며 함께 음식을 만든다.
③ “현수가 아주 열심이로구나. 잘하고 있어. 괜찮아.”라며 안심시킨다.
④ 위의 ①, ②, ③ 이외의 새로운 방안